

사슴엑기스 열기, 실상을 제대로 알자

—건웅제약으로부터 해명을 받아내기까지—

최 근들어 사슴중탕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로 일간지를 상대로 광고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서로 자기회사 제품이 최고인양 화려한 문구를 총동원하여 사슴중탕을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사슴사육자들 사이에서는 중탕·중탕·녹즙·엑기스 등으로 불리어왔던 이들 제품들이 지금은 거의 「엑기스」로 통일하여 광고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 양록업 발전을 위해 한편으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너무 가열되다 보면 기존 농가들의 「엑기스」 판로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일부 상업성을 앞세운 악덕업자들에게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지로 일부에서는 피해를 본 농가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생겨나고 있어 사슴사육농가들은 이들 상인들과 계약을 맺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달팽이엑기스→흑염소엑기스→사슴엑기스로 이어지는 열기가 만만치 않다. 잘못 대응하다가는 사슴엑기스가 단명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없지 않다. 상업성만을 앞세운 업체들이 중구난방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에 편승하다 피해를 보는 양록농가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알고 있는 사슴엑기스의 열기를 진단체 보고, 협회 차원에서 사슴엑기스 판매와 관련, 물의를 일으킨 건웅제약으로부터 해명을 받아 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판단된다.

5개 업체 활발한 영업

협회에서 자체 조사한바에 따르면 현재 사슴엑기스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에 걸쳐 20여개 업체로 이중 (주)안성제약, 천보식품(주), 건웅제약(주), 두리농산(주), (주)크레피아 등 5개업체가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성제약(주)은 충북 진천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고, 천보식품(주)은 호주에서 사슴추출물을 수입하

여 제품을 만들고, 건웅제약(주)은 한국사슴연합회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하는데 허위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사슴연합회는 충북 음성 M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상호로 실상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사슴사육 생산자 단체인 것으로 오인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두리농산(주)은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판매중이며, (주)크레피아는 아직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좀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

문제는 사슴엑기스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 조짐을 보이자 건강식품쪽에 몸담아 왔던 회사들이 너도나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못하다가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사슴엑기스 취급업체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약의 대명사로 알려진 녹용과 사슴이



△ 일간지에 게재된 「사슴엑기스」광고들.

서자 취급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것은 상업성만을 앞세운 물지각한 업체에서 공급한 사슴엑기스가 약효도 없고 복용해도 「그저그렇더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깊이 심어줄까 해서다. 결국 피해는 우리 양육농가가 볼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사슴엑기스의 판매 방안은 사슴사육 생산자 단체인 조합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원료공급을 판매업체에 제공해 주는 것도 사슴사육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 사슴엑기스 판매업체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제공해 주는 원료를 1백% 사용하는지를 항상 감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적당한 선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시늉만 한체 제품의 질을 도외시키고 짐짓 뒷전으로 수입사슴 추출물을 사용할 게재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양육조합 사슴엑기스 판매 사업 진출

이렇듯 사설업자의 사슴엑기스 진출을 관심있게 지켜본 한국양육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이중해)은 최근 이 분야를 파고들 만한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초부터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하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슴엑기스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양육조합은 밝히고 있다. 사슴사육농가들은 양육조합의 사슴엑기스 제품 공급에 적극 호응하여 이왕이면 우리 양육인의 밥그릇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슴영농조합법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양육인들 또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우리 양육인들의 이상적인 생각에 머물수 있고 희망사항으로 고착될 소지가 있어 최근 우리 협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한 사슴엑기스 공급 업체와의 공방전 끝에 해명을 끌어내기까지의 전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하여 사슴사육농가들은 사슴엑기스 공급업체에서 접근해 올때 신중히 대처하기를 바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사슴엑기스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5개사이다. 이중 가장 활발히 광고전을 펼친 곳은 건웅제약(주)으로 일간지에 무려 6회이상의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한 협회는 여러곳에서 의문점을 발견하고 추적 조사에 나섰다.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원료공급처가 「한국사슴연합회」로 듣도 알지도 못한 정체불명의 생산자단체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어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를 눌렀다.

건웅제약(주)과 한국사슴연합회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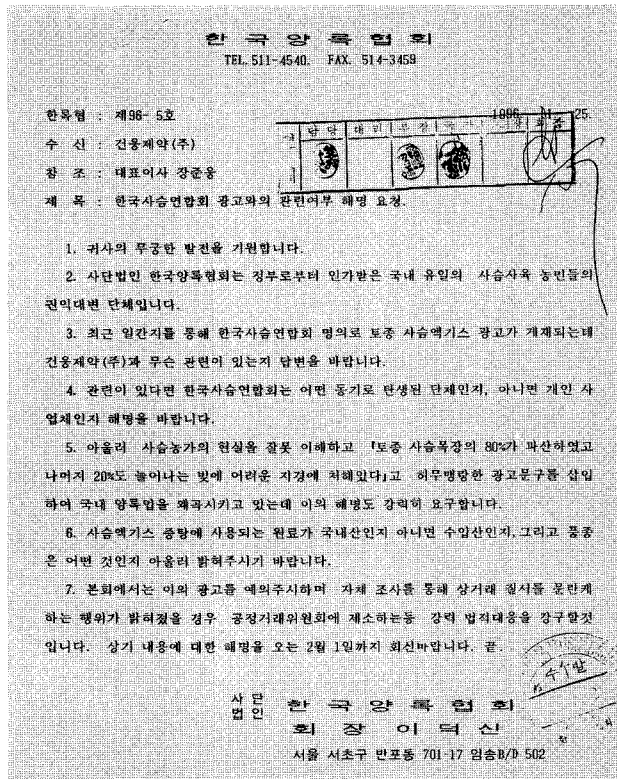
전화를 걸어 「한국사슴연합

회)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대표가 누구냐고 하자 기다려 보라며 서너사람을 번갈아 바꾸며 지금 대표가 자리에 없으니 다시 전화하라고 했다. 전화통화중 진천사슴영농조합법인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해 곧바로 진천사슴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곳의 담당자는 건웅제약(주)과 원료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현재는 파기상태이며 계약 미이행으로 청주법원에 고발한 상태라고 털어놨다.

분명 흑막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재차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다이얼을 눌러 「한국사슴연합회」의 실체를 캐나가자 건웅제약(주)에 문의하라고 했다. 건웅제약(주)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부재중이라며 다음날 오전중에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협회에서 정체불명의 생산자단체인양 오도하고 있는 「한국사슴연합회」를 추적하던 중 이의 신문광고를 본 몇몇 양육인들과 조합에서 「한국사슴연합회」가 누가 이끄는 무슨 단체냐고 문의해 오기도 했다.

협회에서는 「한국사슴연합회」를 건웅제약(주)이 사슴액기스를 판매하고자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임의로 만든 상호이거나, 아니면 양육인 일개인이 개입하여 만든 유명단



△ 협회에서 건웅제약에 보낸 공문

체일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합과 의견을 조율하여 건웅제약(주)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건본참조).

공문을 보낸 날짜가 1월 25일로, 회신을 2월 1일까지 협회에 도착하도록 요청했다.

협회는 1월 30일 정기총회를 가졌는데 마침 청주지회 운영위원 류근형씨가 건웅제약(주)의 부조리를 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알려졌다. 류근형씨는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 대표인데 왜 건웅제약(주)을 고발했는지 물었다. 이유인즉 건웅제약(주)과 원료를 공급기로 계약을 맺은 「한국사슴연합

회」의 대표인 M씨가 바로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 회원이라고 밝혔다.

건웅제약(주)이 「한국사슴연합회」와 계약을 맺고 뚜렷한 이유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회원 보호차원과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고발했다는 것이다.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음성경찰서 등 3곳에 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상거래 질서 문란을, 소비자보호원에는 원료 공급처 「한국사슴연합회」 이름이 찍힌 사슴액기스 제품의 전량 회수를, 음성경찰서에는 계

약 미이행에 대한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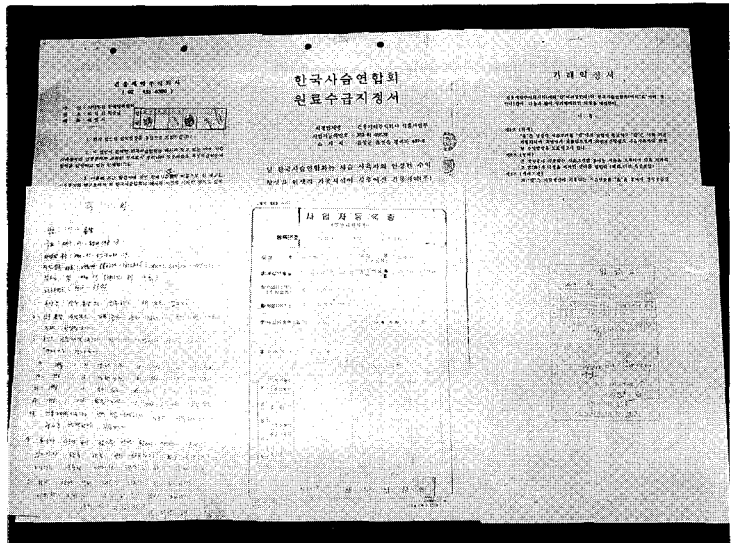
사슴사육농가나 회원의 보호 차원에서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 대표인 류근형씨의 고발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일개 개인인 M씨가 「한국사슴연합회」란 상호를 만들어 전체 사슴사육 농가의 생산자 단체인 양 오도케한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죄해야 할 대목이 아닐수 없다.

유명단체 근절 시급하다

이런 정체불명의 단체이름으로 농가는 물론 소비자를 험혹케하는 양록인이 전국에 걸쳐 몇군데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협회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명 단체이름을 내걸고 있는 개인은 즉시 상호를 개명해야 하며, 협회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국내에서 양록농가의 권익대변 생산자 단체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하나임을 양록인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드디어 건웅제약(주)으로부터 1월 30일 협회를 방문하겠다는 요지의 전화를 받았다. 당일 건웅제약(주) 특판부 본부장과 태웅식품(주) 총무부 차장의 방문이 있었다. 건웅제약(주)은 바로 태웅식품(주)의



△ 건웅제약측이 갖고온 각종 서류들.

자회사이다.

협회를 방문하여 정중히 사과한 후 협회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의향을 물어, 협회에서는 그동안의 경위와 양록업을 왜곡시킨 처사에 대해 일간지에 사과문을 광고할 것을 이들 방문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그런데 이들 방문자로 하여금 또하나 의문의 꼬리가 붙었다. 이번 광고는 건웅제약(주)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건웅제약(주)도 한국사슴연합회와 똑같이 피해자라는 사실이라고 각종 서류를 들이민 것이다 (사진참조).

유통업체인 대구의 신우통상(대표 김영식)이 건웅제약(주)과 「한국사슴연합회」의 의향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광고를 게재하여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건웅제약(주) 입장에서는 광고가 나간 자체도 몰랐다는 해명이었다. 이를두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고 해야 할까...

건웅제약(주)이 신우통상을 앞세워 치고빠지는 전략적인 상술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데도 서류상으로 신우통상을 교묘히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협회는 모든 양록농가는 건웅제약(주)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웅제약(주) 명의로 해명 광고를 내고, 신우통상에 대해서는 건웅제약(주)이 자체적으로 법적대응을 해나가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해서 건웅제약(주) 명의로 해명 광고를, 신우통상 이름으로 사과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기로 2월20일 현재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이에앞서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 류근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과 같이 협회차원에서 대응하여 일간지에 해명 및 사과광고가 게재될 것임을 알리자 절대 받아 들이면 안된다고 했다. 그것은 그들의 상습적인 상행위로 사과광고를 받아들이면 이번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빠져나갈 구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지만 협회에서는 협회대로 조치를 취해 해명 및 사과광고를 받아내고,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은 나름대로 강하게 밀어부쳐 법적대응을 강구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사슴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오는 몰지각한 업체에 피해를 보지않기 위해서는 모든 양록인들은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한다.

협회에서도 국내 양록업이 왜곡되고 현실을 도외시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더불어 양록농가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를 협회로 곧장 제보해 주기를 기대한다.*

公 告

분양장 지정 취소

대 표:김 용 주
농장명:동산사슴목장
주 소: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282

본회에서는 1995년 7월 10일 귀 사슴목장을 분양장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홍보비를 연도말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홍보비는 지정과 동시에 납입토록 규정), 지난 1월31일 올해 홍보비 변경 및 납부절차와 홍보자료 제출을 안내했는데도 이에 호응하지 않는등 무성의로 일관 하였습니다. 더욱이 분양장 지정을 추천한 지회장이 추천 절회의사를 밝힘에따라 본회 분양장 규칙 제9조에 의거 분양장 지정을 취소합니다.

앞으로 귀 사슴목장은 본회 지정분양장과 관련된 어떠한 홍보도 해서는 안될것임을 통보합니다.

1996. 2. 25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